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 아동의 지각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

이 민 식†

오 경 자

서울 인지치료 상담센터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지각된 부정적 양육태도에 의한 매개 경로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 461명(남아=220, 여아=241)을 표집하여 아동 각각과 부모 및 담임교사로부터 부부갈등, 지각된 부정적 양육태도,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가장 잘 부합하는 모델을 탐색한 결과 내면화 문제의 경우에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다시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에서 내면화 문제로 영향을 주는 직접경로와 지각된 부정적 양육태도에 의해 매개되어 내면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간접경로가 둘 다 유의하였다. 외현화 문제의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의해 매개되어 지각된 부정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고 다시 외현화 문제로 영향을 주는 간접경로가 유의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직접적으로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경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 모형의 검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아동의 성별은 부부갈등이 내면화 혹은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중재효과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은 “부부가 서로의 대립과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교환하는 관찰 가능한 부정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이라고 정의되며 여기에는 가출, 언

쟁, 신체적 싸움 등과 같은 다양한 행동전략들이 포함된다(Strauss, 1979). 부부갈등은 아동의 공격성, 불복종, 행동 문제와 같은 외현화 장애(externalizing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 민 식 / 서울인지치료상담센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1-7 다지빌딩 4층 135-120 / FAX : 02-511-4427 / E-mail : tomslee@kebi.com

disorder)나 우울, 불안, 사회적 고립과 같은 내면화 장애(internalizing disorder)와 관련이 많으며(Emery, 1982), 사회적 유능성(Emery & O'Leary, 1984), 학업 성취도(Long, Slater, Forehand & Fauber, 1988)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여러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는 측면은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와 같은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관한 것이다(Grych & Fincham, 1990; Davies & Cummings, 1994).

부부갈등은 생후 6개월부터 청소년 말기에 이르기까지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Cummings, Ballard & El-Sheikh, 1991). 또한, 아동의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 유형에 차이를 나타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남아와 여아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rych & Fincham, 1990).

부부갈등을 측정하는 지표들은 결혼생활의 긴장과 불만족 수준을 측정한 지표들보다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과 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mery & O'Leary, 1984; Jenkins & Smith, 1991). 또한, 부모의 이혼이 아동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 여러 연구결과에서 확인되어 왔지만(Wallerstein & Kelly, 1980), 실제로는 이혼 그 자체보다 이혼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친 부부간의 갈등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더욱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etherington, Cox & Cox, 1985). 아울러, 부모의 정신병리나 성격 장애보다도 부부갈등이 아동의 반사회적 문제 행동과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고(Rutter, 1971), 정신분열증을 제외하고 우울증 및 기타 신경증의 경우에 부모의 정신병리보다 부부갈등이 자녀들의 심리적 부적응 문제와 더 직접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Emery, Weintraub & Neale, 1982; Cummings & Davies, 1995).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는 갈등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rych와

Fincham(1990)은 부부갈등에 대한 "인지-맥락 모형(cognitive-contextual framework)"을 제안하였는데, 이 이론에서는 부부의 갈등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아동이 부모의 갈등이라는 자극을 어떻게 인지적으로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하였다. 즉, 부부갈등의 실제 양상보다 아동이 이를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느냐가 아동의 심리적 적응과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부모의 자기 보고나 부부간의 상호 관찰을 통해 측정된 부부갈등보다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의 정도가 아동의 적응문제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의 정도를 일관성 있게 예측해 준다(Grych, Seid & Fincham, 1992). 부부갈등을 경험한 아동들의 즉각적인 감정반응(Cummings, Davies & Simpson, 1994), 대처행동 및 역기능적 반응(Grych & Fincham, 1993), 장기적인 심리적 적응 수준(Fincham, Grych & Osborne, 1994) 등도 제 삼자에 의해 관찰되거나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의 정도보다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정도에 의해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면서 동시에 부부갈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으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들 수 있다(Fincham et al., 1994). 일찍이, Margolin(1981)은 부부갈등 그 자체가 아동에게 즉각적인 위협을 주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변화시켜 전반적인 아동의 양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심각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여러 연구에서 부부갈등의 맥락에서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대한 부모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연구 결과에는 다소 불일치하는 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Dadds와 Powell(1991)에 의하면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서는 부모의 일관성 없는 훈육이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의 영향을 매개하였지만, 내면화 문제에서는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이 직접적으로 아동의 내면화 문제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일관성 없는 훈육방식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기도 한다는 결과

를 보였다. Fauber와 Forehand와 Thomas 및 Wierson (1990)는 이와 반대로 내면화 장애에서는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통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간접 경로만이 유의미하고 외현화 장애에서는 직접 경로와 간접 경로가 모두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Osborne과 Fincham(1996)의 연구에서는 남아와 여아 모두 내면화 장애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로와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에 의해 매개되는 간접 경로가 둘 다 유의미하였다. 외현화 장애는 여아의 경우에 간접 경로만이 유의미하였고, 남아의 경우는 직접, 간접 경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Harold와 Fincham과 Osborne 및 Conger (1997)의 연구에서는 외현화 문제의 경우 남아와 여아 모두에서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매개되는 간접 경로만이 유의하였다. 내면화 문제의 경우에는 여아에서는 간접 경로만 유의하였으나 남아에서는 직접 및 간접 경로가 둘 다 유의하였다. 그런가 하면, Jouriles와 Barling 및 O'Leary(1987)가 임상 집단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적대적, 공격적 양육태도에 의해 매개되어 아동의 부적응 문제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런데, 거의 유사한 측정치와 방법을 통해 정상집단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Jenkins와 Smith(1991)의 연구에서는 매개 경로가 지지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주요 연구 결과들은 부부갈등이 직접적으로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초래하여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시사하고 있다. 이런 결과들은 부부갈등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아동의 정신병리적 문제 유형이나 정도, 아동의 성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auber와 Long(1991)은 간접 경로가 직접 경로보다 설명력이 크며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통한 간접적 영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Harold

등(1997)도 역시 비슷한 견해를 제시하였는데, 직접 경로와 간접 경로의 영향력을 서로 비교하는 것보다는 아동의 성별이나 문제 유형(내면화 혹은 외현화)과 같은 조건들에 따라 각 경로의 상대적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부부갈등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양육태도 역시 아동이 이를 어떻게 지각하는가가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Osborne & Fincham, 1996). 부모에 의해 얻어지거나 제 삼자가 관찰한 부모-자녀 관계의 문제보다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더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다(Harold et al., 1997). 또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보다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Osborn & Fincham, 1996; Harold et al., 1997).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부갈등에 대한 측정지표로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 혹은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중 어느 한가지를 채택한 연구는 많으나 이 두 변인을 모두 포함시켜 매개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통합하면 부모에 의해 보고된 부부갈등은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의해 매개되고 이는 다시 아동의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매개되어 최종적으로 아동의 내면화 혹은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그림 1). 한편, 이러한 경로는 아동의 문제 유형이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Grych & Fincham, 1990; Davies & Cummings, 1994; Harold et al., 1997).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경로를 그림 1과 같이 가정하고 이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아동의 문제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현상을 이해하는 데 보다 적절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Harold et al., 1997), 본 연구에서도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를 구분하여 경로 모형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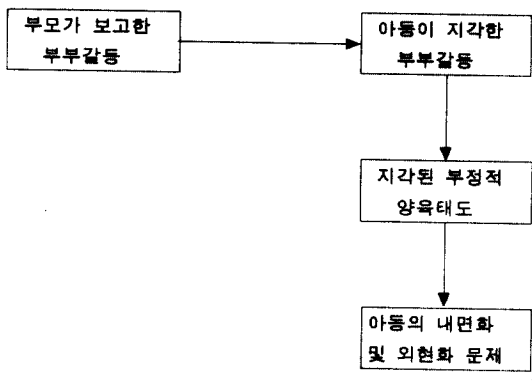


그림 1. 기본 경로모형

하였다. 또한, 아동의 성별을 하나의 중재변인으로 보고 그림 1의 기본 경로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나아가서 그림 1의 기본 경로 모형보다 수집된 자료를 더 적합하게 설명하는 모형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서울특별시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 5, 6학년 남녀 아동들 461명과 그 부모 922명(아버지=461, 어머니=461), 담임교사 12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처음에는 각 학년별 4개 학급씩 총 12개 학급 579명이 표집 되었는데, 이 중에서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으로 결손이 있는 가정의 아동들과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 등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461 사례로, 최초 표집 대상의 79.6% 였다. 전체 아동 461명의 평균 연령은 11.08($SD=0.84$)세이며, 남아가 220명(47.7%), 여아가 241명(52.3%)이었다. 아버지들의 평균 연령은 41.13($SD=3.65$)세, 어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38.17($SD=2.94$)세였다. 부모의 평균 결혼 기간은 13.15($SD=2.78$)년이었다. 가정의 월 평균 수입과 부모의 학력 등 인구학적 변인에 관한 것은 부

록 1과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조사 도구

갈등 책략 척도(Conflict Tactics Scales: CTS). 부모로부터 부부갈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trauss (1979)의 Conflict Tactics Scales(CTS) A형 중에서 언어적 공격과 신체적 공격 하위척도에 해당되는 10개 문항(예, 소리를 지르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 무언가를 던졌다 등)을 사용하였다. 부모 각각에게 부부 싸움을 할 때 자신이 상대방에게 한 행동과 상대방이 자신에게 한 행동에 대해 평정하도록 한 후 이를 합산하여 부부가 보고한 부부갈등 점수를 산출하였다.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남편의 자기 행동에 대한 보고가 .86, 남편의 부인 행동에 대한 보고가 .85, 부인의 자기 행동에 대한 보고가 .80, 부인의 남편 행동에 대한 보고가 .90이었다.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PIC).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Grych 등 (1992)의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PIC)을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국내에서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권영옥과 이정덕(1997)에서 추출된 요인들 중 "갈등의 특성" 요인에 해당되는 19개 문항만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 등 갈등의 특성 요인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특히 유해한 측면들이라는 선행 연구의 결과들에 근거한 것이다(Cummings & Cummings, 1988; Grych et al., 1992).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갈등이 빈번하고 심각한 형태를 띠며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86이었다.

지각된 부정적 양육태도 척도. 이 척도는 Davies와 Cummings(1994)가 부부갈등의 맥락에서 중요하다고 보고한 세 가지 부정적 양육태도, 즉, 부모가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현하고 적대적, 공격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적대적 태도", 아동의 요구를 거부하

거나 아동의 요구에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부 및 무관심”,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 지지를 요구하거나 부모의 문제에 관여하고 부모의 안녕에 책임을 느끼도록 하는 “심리적 통제” 방식 등을 측정한다. 적대적 태도와 거부 및 무관심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Schaefer(1965)가 제작한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CRPBI), Hudson(1982)의 Index of Parental Attitudes(IPA)에서 자녀용 척도, 이숙(1988)이 제작하여 표준화한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 등에서 부모의 적대적 태도와 거부 및 무관심을 측정하는 하위 척도의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심리적 통제는 Schaefer(1965)의 CRPBI에서 통제 하위 척도와 Grych 등(1992)의 CPIC에서 삼각관계 하위척도의 일부 문항을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총 18개 문항이며 아동으로 하여금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부정적 양육 태도를 4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고 이를 합산하여 지각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점수를 산출하였다.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아버지용이 .85, 어머니용이 .88이었다.

아동의 행동 평가 척도.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을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Achenbach와 Edelbrock(1983) 및 Achenbach(1991)가 제작한 Child Behavior Checklist(CBCL)를 오경자와 이해련과 홍강의 및 하은혜(1997)가 우리말로 번역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를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외현화 문제는 외부 관찰자가 더 정확히 평정하는 반면, 내면화 문제는 아동 자신이 더 정확히 평정한다고 알려져 있다(Achenbach, McConoughy & Howell, 1987). 따라서, 내면화 문제를 측정하는데는 K-CBCL의 자기 보고형 검사의 내면화 중후군 척도에 해당되는 31개 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전체 내면화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89였다.

외현화 문제를 측정하는데는 가정과 학교에서 관찰되는 문제양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머니의 평정치와 교사의 평정치를 모두 사용하였다. 어머니들에게는 K-CBCL의 부모 보고형 검

사 중 외현화 장애 척도(비행 및 공격성)에 해당되는 총 32개 문항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87이었다. 교사가 보고하는 아동의 외현화 문제는 K-CBCL의 외현화 문제 척도 32개 문항 중에서 16개 문항만을 선정하여 각 담임 교사들에게 제시하고 해당 학급의 개별 아동들 모두를 평정하도록 하였다. 문항을 선정할 때는 이해련과 오경자와 홍강의 및 하은혜(1991)의 연구에서 일반 정상군의 아동들에게서 반응빈도가 지나치게 적거나 변별력이 낮은 10개의 문항들을 일차적으로 제외하고, 일선 초등학교에 재직중인 담임교사 2명에게 자문을 구하여 학교에서 담임교사들이 관찰하기 어렵다고 하는 문항 6개를 추가로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16개 문항을 구성하였다.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는 .91이었으며, 실제 분석에서는 평정자의 편차를 감안하여 학급별로 표준점수를 산출하여 통계처리에 활용하였다.

절차

조사 기간은 1998년 10월 2일부터 1998년 12월 1일까지였다. 아동의 자료는 연구자가 학교를 방문하여 설문지를 전달하고 담임교사의 감독 아래 아동들에게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부모용 설문지는 아동을 통해 각 가정으로 가져가 부모가 응답하도록 하고 응답한 설문지는 봉합하여 다시 아동을 통해 수거하였다. 교사용 설문지는 담임 교사에게 학급 아동들의 개별적인 행동 문제를 평정하는 설문지를 한 권의 책자로 제작하여 배포하고 이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결 과

측정치들의 평균(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된 측정치들의 평균(표준편차) 및 성별에 따른 단일 변량분석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을 보면, 교사가 보고한 아동의

외현화 문제를 학급별로 표준화한 점수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점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교사가 보고한 외현화 문제를 학급별로 표준화한 점수에서는 남아의 평균 점수가 여아의 평균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F(1, 459)=15.276$, $p<.001$, 이는 동일한 교사가 학급의 모든 아동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여아들에 비해 남아들의 외현화 문제가 더 현저하게 관찰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각 측정치들이 경로 분석의 가정에 적합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 대상자 전체 및 성별에 따라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표 2).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측정 변인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변인들간의 매개관계를 가정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교사가 보고한 외현화 문제 점수는 전체 집단은 물론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여 보았을 때에도 부모가 보고한 부부 갈등 및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점수와의 상관성이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남아의 경우에는 지각된 부정적 양육태도와의 상관도 유의하지 않았다. 비록 교사에 의해 관찰된 아동의 외현화 문제가 신뢰로운 측정치일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본 연구에서 가정된 독립변인이나 매개변인들과 상관성이 낮아 매개 경로를 가정하기 위한 기본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가 보고한 외현화 문제 점수를 종속측정치로 하는 매개경로 검증은 의미가 없으므로,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대한 매개경로 검증은 어머니가 보고한 외현화 문제 점수만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표 1. 성별 측정치들의 평균(표준편차) 및 단일 변량분석 결과

| | 전체(n=461) | 남(n=220) | 여(n=241) | $F_{1,459}$ |
|----------------|--------------|--------------|--------------|-------------|
|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 | 27.21(20.97) | 26.83(20.56) | 27.57(21.38) | .142 ns |
|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 7.46(5.87) | 7.59(6.10) | 7.34(5.66) | .202 ns |
| 지각된 부정적 양육태도 | 12.44(11.90) | 12.62(12.56) | 12.29(11.29) | .089 ns |
| 내면화 문제 | 14.42(9.14) | 13.68(9.45) | 15.10(8.82) | 2.811 ns |
| 외현화 문제(어머니 보고) | 7.23(5.85) | 7.76(6.20) | 6.75(5.47) | 3.468 ns |
| 외현화 문제(교사 보고) | -.033(.927) | .141(1.047) | -.192(.770) | 15.276** |

주. ()안은 표준편차. *** $p<.001$.

표 2. 측정치들간 상관관계

| | 남 아 | | | | | 여 아 | | | | | 전 체 | | | | |
|---|---------|---------|---------|------|---------|---------|---------|---------|---------|---------|---------|---------|---------|---------|---------|
| | 1 | 2 | 3 | 4 | 5 | 1 | 2 | 3 | 4 | 5 | 1 | 2 | 3 | 4 | 5 |
| 2 | .287*** | | | | | .422*** | | | | | .355*** | | | | |
| 3 | .147* | .555*** | | | | .142* | .507*** | | | | .144** | .532*** | | | |
| 4 | .159* | .507*** | .578*** | | | .088 | .369*** | .524*** | | | .123** | .437*** | .550*** | | |
| 5 | .297*** | .164* | .165* | .130 | | .184** | .182** | .184** | .270*** | | .237*** | .174*** | .174*** | .188*** | |
| 6 | .044 | .088 | .116 | .101 | .221*** | .040 | .068 | .135* | .157* | .269*** | .038 | .081 | .124** | .108* | .251*** |

주. 1.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 2.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3. 지각된 부정적 양육태도, 4. 내면화 문제, 5. 어머니가 보고한 외현화 문제, 6. 교사가 보고한 외현화 문제. * $p<.05$. ** $p<.01$. *** $p<.001$.

경로모형 분석

일차적으로 그림 1에서 가정한 기본 경로모형을 기초로 하여 모형의 부합도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기본 경로모형이 전체 자료를 설명하는 부합도가 충분하지 않을 때는 단계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자료에 가장 잘 부합하는 모형을 찾아가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남아와 여아간에 단일한 경로 모형을 설정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검증하고, 현저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남아와 여아 집단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일 모형을 추구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공변량 자료는 부록 3에 제시되어 있다.

부록 4는 내면화 문제에 대한 경로 모형 검증 절차를 요약한 것이다. 부록 4의 단계 1에서 남아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설정한 기본 모형(I_0)의 부합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기본 모형은 자료에 잘 부합하지 않았다, $\chi^2(3, n=220)=17.249, p=.000628$. 추가 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검토한 결과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에서 내면화 문제로 가는 경로를 추가할 경우 χ^2 값이 16.339 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본 모형에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에서 내면화 문제로 가는 경로를 추가하여 수정 모형(I_1)을 구성하고 부합도를 검토하였다(부록 4의 단계 2). 그 결과 수정된 모형(I_1)은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2, n=220)=0.189, p=.910$. 수정된 모형이 기본 모형에 비해 유의하게 자료에 잘 부합하는 모형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Bentler와 Bonett(1980)의 절차에 따라 기본 모형을 준거 모형으로 하고 수정된 모형과의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부록 4의 단계 3). 그 결과 수정된 모형(I_1)은 기본 모형(I_0)보다 유의하게 자료에 더 잘 부합하는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Delta\chi^2(1)=17.06, p<.001$. 따라서, 남아의 내면화 문제에 있어서 수정된 모형(I_1)을 적합한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부록 4의 단계 4에서는 여아 집단을 대상으로 기본 모형(I_0)의 부합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기본 모

형은 자료에 유의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χ^2 값이 유의도의 임계치($p=.05$)에 가까워 부합도가 충분히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chi^2(3, n=241)=7.422, p=.0596$. 추가지수를 검토한 결과,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에서 내면화 문제로 가는 경로를 추가할 경우 χ^2 값이 6.231만큼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에서 내면화 문제로 가는 경로를 추가하여 수정된 모형(I_1)을 구성한 후 부합도를 검증하였다(부록 4의 단계 5). 그 결과 수정된 모형은 부합도가 높아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2, n=241)=2.571, p=.277$.

수정된 모형이 기본 모형에 비해 유의하게 자료에 잘 부합하는 모형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기본 모형을 준거 모형으로 하고 수정된 모형과의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부록 4의 단계 6). 그 결과 수정된 모형(I_1)은 기본 모형(I_0)보다 유의하게 자료에 더 잘 부합하는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Delta\chi^2(1)=4.851, p<.05$. 따라서, 여아의 경우에도 수정된 모형(I_1)을 적합한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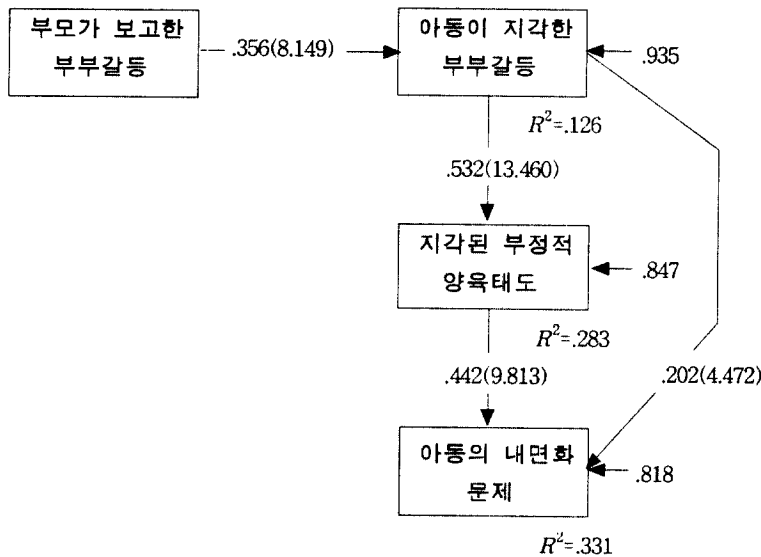
단계 6까지의 검증 결과 남아와 여아 모두 동일하게 수정된 모형 I_1 이 기본 모형보다 더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판정되었다. 따라서, 수정된 모형 I_1 이 남아와 여아 모두에서 동일하게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다-집단 분석(multi-sample analysis: Jöreskog & Sörbom, 1993)을 실시하였다(부록 4의 단계 7). 모형의 모든 경로에 남녀 집단간 동일화 제약(equality constraint)을 주고 검증한 결과 수정된 모형(I_1)은 남녀 집단 모두에 동일하게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11)=11.781, p=.380$.

결국 남녀 집단간 모형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므로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수정된 모형 I_1 의 부합도를 검증하였다(부록 4의 단계 8). 그 결과 수정된 모형은 부합도가 높아 전체 집단의 자료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2, n=461)=1.626, p=.443$. 따라서, 수정된 모형 I_1 을 전체 집단의 내면화 문제에 대해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그림 2에는 최종적으로 채택된 경로 모형(I_1)의 검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그림에 제시된 경로 모형

의 모든 경로계수는 고정지수(T-value)가 2.0 이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최종적으로 채택된 경로 모형에 의하면, 부모의 갈등은 부모 갈등에 대한 아동의 지각에 의해 매개되어 직접적으로 아동의 내면화 문제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지각된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에 의해 매개되어 내면화 문제로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을 구성하고 부합도를 검토하였다(부록 5의 단계 2). 그 결과 수정된 모형(E_1)은 자료에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2, n=220)=0.137, p=.934$. 수정된 모형이 기본 모형에 비해 유의하게 자료에 잘 부합하는 모형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기본 모형을 준거 모형으로 하고 수정된 모형과의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부록 5의 단계 3). 그 결과 수정된 모형(E_1)은 기



주: 경로계수는 표준화 회귀계수(β). ()안은 고정지수(T-value). R^2 는 다중상관자승치. 잔여 경로계수= $\sqrt{1-R^2}$. 모든 경로가 유의함(고정지수 2.0 이상). 부합 지수 $\chi^2(2, n=461)=1.626, p=.443$.

그림 2. 아동의 내면화 문제에 대한 최종 경로 모형(I_1)

부록 5는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대한 경로 모형 검증 절차를 요약한 것이다. 우선, 부록 5의 단계 1에서 남아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설정한 기본 모형(E_0)의 부합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기본 모형은 자료에 잘 부합하지 않았다, $\chi^2(3, n=220)=17.920, p=.000457$. 추가지수를 검토한 결과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에서 외현화 문제로 가는 경로를 추가할 경우 χ^2 값이 17.069 만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본 모형에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에서 외현화 문제로 가는 경로를 추가하여 수정 모형(E_1)

본 모형(E_0)보다 유의하게 자료에 더 잘 부합하는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Delta\chi^2(1)=17.783, p<.001$. 따라서, 남아의 외현화 문제에 있어서는 잠정적으로 수정된 모형(E_1)을 적합한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부록 5의 단계 4에서는 여아 집단을 대상으로 기본 모형(E_0)의 부합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기본 모형은 잘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3, n=241)=8.880, p=.0309$. 추가지수를 검토한 결과,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에서 외현화 문제로 가는 경로를 추가할 경우 χ^2 값이 6.464만큼 감소할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에서 외현화 문제로 가는 경로를 추가하여 수정된 모형(E₁)을 구성한 후 부합도를 검증하였다(부록 5의 단계 5). 그 결과 수정된 모형은 부합도가 높아 여아의 자료에 잘 부합되는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chi^2(2, n=241)=2.474, p=.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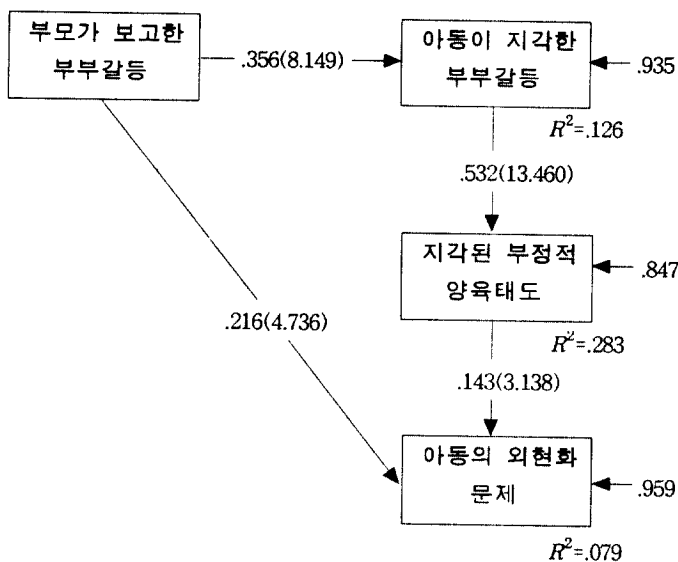
수정된 모형이 기본 모형에 비해 유의하게 자료에 잘 부합하는 모형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기본 모형을 준거 모형으로 하고 수정된 모형과의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부록 5의 단계 6). 그 결과 수정된 모형(E₁)은 기본 모형(E₀)보다 유의하게 자료에 더 잘 부합하는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Delta \chi^2(1)=6.406, p<.025$. 따라서, 여아의 경우에도 수정된 모형(E₁)을 적합한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단계 6까지의 검증 결과 남아와 여아 모두 동일하게 수정된 모형 E₁이 기본 모형보다 더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판정되었다. 따라서, 수정된 모형 E₁이 남

아와 여아 모두에서 동일하게 부합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수정된 모형(E₁)에서 설정된 모든 경로에 남녀 집단간 동일화 제약(equality constraint)을 주고 중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부록 5의 단계 7). 그 결과 수정된 모형(E₁)은 남녀 집단 모두에 동일하게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11)=11.781, p=.380$.

결국 남녀 집단간 모형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므로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수정된 모형 E₁의 부합도를 검증하였다(부록 5의 단계 8) 그 결과 수정된 모형은 부합도가 높아 전체 집단의 자료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i^2(2, n=461)=1.832, p=.400$. 따라서, 전체 집단의 외현화 문제에 대해 수정된 모형 E₁을 적합한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그림 3에는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있어 최종적으로 채택된 모형(E₁)의 검증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그림 3에 제시된 경로 모형의 모든 경로계수는 고정지수(T-value)가 2.0 이상으로 모두 유의하였다. 최종적



주: 경로계수는 표준화 회귀계수(β). ()안은 고정지수(T-value). R^2 는 다중상관자승치. 잔여 경로계수= $\sqrt{1-R^2}$. 모든 경로가 유의함(고정지수 2.0 이상). 부합지수 $\chi^2(2, n=461)=1.832, p=.400$.

그림 3.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대한 최종 경로 모형(E₁)

으로 채택된 경로 모형에 의하면, 부모의 갈등은 한편으로는 부모 갈등에 대한 아동의 지각에 의해 일차적으로 매개되어 지각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고, 다시 지각된 부정적 양육태도가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의 갈등이 직접적으로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경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경로 모형 검증 결과, 내면화 문제의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본 모형(그림 1)에다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에서 내면화 문제로 직접 가는 경로가 추가된 모형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그림 2). 그리고 이러한 모형은 남아와 여아에게서 동일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모형에 의하면,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의 영향은 일차적으로 부모 갈등에 대한 아동의 지각에 의해 매개된 다음 직접적으로 내면화 문제로 영향을 주기도 하며, 부분적으로는 지각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에 의해 매개되어 내면화 문제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에서 연구자가 가정한 경로 외에도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직접적으로 내면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은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부부갈등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에 의해 매개되는 경로도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부갈등 자체가 지닌 스트레스적 속성이 아동의 내면화 문제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현화 문제의 경우에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기본 모형에다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에서 아동의 외현화 문제로 직접 가는 경로를 추가한 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잘 부합하는 모형인 것으로 판명되었다(그림 3). 그리고, 이러한 모형은 남아와 여아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자료에 더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에 의하면,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은 한

편으로는 부모 갈등에 대한 아동의 지각에 의해 매개되고 다시 지각된 부정적 양육태도에 의해 매개되어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에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이 직접적으로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주는 경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면화 문제에 대한 경로 모형 검증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가정한 기본 전제와 근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외현화 문제에 대한 경로 모형 검증 결과에서는 해석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점이 드러났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로다. 최종 모형에서는 이 경로가 전체 자료를 설명하는데 매우 의미있는 경로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즉, 아동의 심리적 적용에 있어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은 일차적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에 의해 매개될 것이라는 가정과 크게 벗어나는 점이다. 특히, 이 점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외현화 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로가 매우 의미가 있다면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지각된 부정적 양육태도에 의해 매개되는 간접경로는 사실상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동이 지각하지 못한 부모의 부부갈등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로 직접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가? 우선, 본 연구자의 견해로는 부모의 부부갈등이 아동의 지각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두 변인간의 "직접적인 인과적 관계"로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만약, 부부갈등이라는 스트레스 자극이 아동의 심리적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러한 자극을 받아들이는 아동의 지각이 개입되지 않은 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을 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지각하지 못한 부부갈등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이는 두 변인간의 인과적 관계라기보다는 아마도 본 연

구에서는 포함시키지 못한 제 3의 다른 변인이나 조건이 부모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와의 관계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환경적인 요인이나 가정 내의 스트레스 요인이 부모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보다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낮은 사회계층에 속하는 가정의 경우 열악한 주거 환경과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공격성 등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증가하며, 아동의 공격적이고 이탈적인 외현화 행동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Elder & Caspi, 1988).

본 연구에서도 부록 1과 부록 2에 제시된 것처럼, 부모의 학력이 부모의 부부갈등 및 어머니가 보고한 아동의 외현화 문제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의 월 평균소득도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지각된 부정적 양육태도, 어머니가 보고한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부모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대해 동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의 부부갈등이 그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는 무관하게 아동의 외현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능성을 높다.

이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부분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집단에서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간의 상관계수가 .237, $p < .001$ 인데(표 2),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가정의 월평균 소득 수준 등을 모두 통제하여 부분 상관 분석을 실시한 후에 산출한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간의 상관계수도 .201, $p < .001$ 로 여전히 유의하였다. 이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부모의 부부갈등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간의 관계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외생적 요인일 가능성을 암시하는 결과다.

두 번째 가능성은 아동의 기질과 같은 소인이 외

현화 문제가 나타나는 데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외현화 문제를 나타내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감정이나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기질적 소인을 타고 나는 경우가 많으며, 내면화 문제를 나타내는 경우보다 미성숙하고 충동적인 문제해결 방식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Tiger, 1980). 이러한 기질적 특성이 다분히 생물학적이고 유전적인 소인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 부모의 부부갈등이 그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는 상관없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를 부모와 아동의 기질적 유사성에서 찾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가능성은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과 아동의 외현화 문제간의 관계에 본 연구에서 설정하지 않은 다른 매개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방임적이고 비일관적인 훈육(Patterson & Stouthamer-Loeber, 1984), 훈육에 대한 부모간 불일치(Block, Block & Morrison, 1981)와 같이 본 연구에서 설정하지 않은 부모-자녀 관계의 문제들은 외현화 문제와 관련이 많으면서, 그 속성상 아동들 자신은 현상을 지각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다.

네 번째 가능성은 외현화 문제에 대한 측정치를 어머니가 보고한 외현화 문제로 설정하여 분석했기 때문에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 측정치와의 관계가 보고자가 동일한 데에서 발생하는 오차로 인해 더 강하게 부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아버지가 보고한 부부갈등 점수와 어머니가 보고한 부부갈등 점수를 분리하여 각각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 점수와 어머니가 보고한 아동의 외현화 문제 점수간의 부분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체 집단에서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과 어머니가 보고한 아동의 외현화 문제간의 상관계수는 .237, $p < .001$ 이었는데(표 2), 아버지가 보고한 부부갈등을 통제한 후에도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과 어머니가 보고한 아동의 외현화 문제간의 상관계수는 .249, $p < .001$ 로 오히려 약간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가 보고한 부부갈등을 통제한 후에는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과 어머니가 보고한 아동의 외현화 문제간의 상관계수가 -.0311,

$p=.506$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과 어머니가 보고한 외현화 문제간의 상관관계가 어머니가 보고한 부부갈등에 의해 대부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한가지 고려해 봐야 할 점은 이러한 편파가 보다 체계적인 이유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Achenbach 등(1987)에 의하면, 아버지보다 어머니들이 결혼생활의 문제나 그 밖의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쉽게 영향을 받아 아동의 문제를 더욱 부정적,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개입되었을 개연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는 추후 연구방법을 보완하여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성별의 중재효과에 있어서는 경로 모형 검증 결과에서 남아와 여아에 대해 같은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더 자료에 잘 부합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중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이런 결과는 과거와는 달리 남아와 여아에게서 기대되는 성역할 행동 양식이 그다지 다르지 않고, 따라서, 스트레스적 자극에 대한 반응 양식에서도 점차 성별에 따른 차이가 희박해지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결국, 앞으로 부부갈등이 아동의 부적응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데 있어 아동의 성차를 고려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기 보다는 남아와 여아를 막론하고 아동이 나타내는 문제 유형, 즉, 내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일부 연구에서 아동의 적응에 대한 부부갈등의 영향에 있어 성차는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즉, 초기 아동기에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부부갈등이나 이혼의 부정적인 영향에 더 취약하지만, 후기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는 성차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Hetherington et al., 1985; Zaslow, 1989). 이에 따른다면, 아마도 대부분 후기 아동기의 연령대에 속하는 본 연구의 대상 아동들에게서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부적응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남녀간의 성차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한가지 간과할 수 없는 점은, 과연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 문제에 있어 본 연구에서 가정된 것처럼 부부갈등의 영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가 하는 의문이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본 연구의 결과에서 구할 수 있는 답은 적어도 내면화 문제에 있어서는 부부갈등의 영향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2의 내면화 문제에 대한 경로 모형 검증 결과를 보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이 아동의 내면화 문제를 설명하는 변량이 약 33.1%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의 설명력이 라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림 3의 외현화 문제에 대한 경로 모형 검증 결과를 보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들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를 설명하는 변량이 약 7.9%에 그친다. 따라서, 외현화 문제의 경우에는 부부갈등과 그것에서 파생되는 양육태도의 영향은 단지 다른 많은 취약 요인들(예, 기질, 환경) 중의 일부이며 그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은 요인일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본 연구에서 외현화 문제에 대해 얻은 결론들을 토대로 마치 아동의 외현화 문제가 부부갈등과 그로 인한 파생물들에 의해 많은 부분이 설명될 수 있는 것처럼 적용하는 오류는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임상 실제에 있어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함의를 몇 가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 갈등이나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를 다루는데 있어서 아동의 지각을 중요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많은 임상가들이 아동의 심리적 부적응 문제의 이면에 부모의 갈등이나 부모-자녀 관계의 문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막상 실제 임상 장면에서는 이런 요인들에 대해 부모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평가와 개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얻은 정보보다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이나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정보가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이 시사된다.

더불어,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 정도와 아동이 지각하는 부부갈등의 정도가 크게 차이가 날 때는, 보다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사유를 탐색해야 할 것이다. 만약, 부모가 자신들의 갈등의 심각성을 부인하는 경우라면 부모에게 부부갈등의 실제 양상을 자각하고 갈등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보다 감소시키도록 적극적인 개입을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아동이 실제 부부갈등의 양상을 더 심각하게 지각하는 경우라면 아동에게 부모의 갈등을 재평가하여 이를 덜 위협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인지적 개입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개입이 부모에게 이루어지던 아동에게 이루어지던 궁극적으로 개입의 즉각적인 효과를 검토하는 기준은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두어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부모의 갈등에 대한 아동의 지각이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지각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상기하면, 부모 갈등에 대한 개입이 궁극적으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아동의 지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둘째, 만약, 부모의 양육태도에 있어 문제가 발견되고 그것이 아동의 부적응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될 때, 부부갈등에 관한 평가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부부갈등이 상존하는 경우라면,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개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부부갈등이 선행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이에 종속되어 악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임상적 개입에 있어서 부부갈등이 있는 부모라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개입은 물론이지만 그에 앞서 부부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결과적으로 부정적 양육태도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설문지를 통해 이루어진 자료를 토대로 한 조사 연구라는 점이다. 측정 과정에서의 철저한 객관성을 확보하는 측면과 변인의 인과성을 실험적 조작에 의해 확인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측정치에 있어 보고자의 편파가

개입될 가능성을 통제하지 못하였고, 이런 점 때문에 결과를 해석하고 일반화하는데 제약이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간의 인과적 관계를 일방향적으로만 가정하였다. 다른 이론적 입장을 취한다면, 본 연구에서 가정한 변인들간의 선후 관계와는 역방향, 혹은 상호 영향을 주는 인과 관계를 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방향적인 인과 관계를 가정하였을 경우에 한정해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대상은 후기 아동기에 속하는 아동들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연령의 아동들에게까지 확대하여 일반화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의 대상 가족은 모두 이혼이나 별거와 같은 심각한 부부 문제를 나타내지 않은 비교적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으며, 아동들 역시 임상적인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정상군의 아동들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곧바로 임상적인 문제가 심각한 아동들에게까지 일반화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내면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에 따라 부부갈등이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면, 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상집단 중에서 내면화 문제를 주로 나타내는 아동들과 외현화 문제를 주로 나타내는 아동들을 구분하여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권영옥, 이정덕 (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 (CPIC)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8(1), 65-80.
-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1997).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 중앙정성연구소.
- 이 숙 (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해련, 오경자, 홍강의, 하은혜 (1991). 문항 분석을 통한 한국판 CBCL의 임상 유용도 검증, *소아청소년정신의학*, 2(1), 138-149.

- Achenbach, T.M., & Edelbrock, C.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 Achenbach, T.M., McConoughy, S.H., & Howell, C. T. (1987). Child/adolescent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Implications of cross-informant correlations for situational specificity. *Psychological Bulletin*, *101*, 213-232.
- Achenbach, T.M. (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Block, J.H., Block, J., & Morrison, A. (1981). Parental agreement-disagreement on child-rearing orientations and gender-related personality correlate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2*, 965-974.
- Bentler, P.M., & Bonett, D.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6.
- Cummings, E.M., & Cummings, J.S. (1988). A process-oriented approach to children's coping with adults' angry behavior. *Developmental Review*, *8*, 296-321.
- Cummings, E.M., & Davies, P.T. (1995). *Children and marital conflict*. New York : Guilford Press.
- Cummings, E.M., Ballard, M., & El-Sheikh, M. (1991). Respons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to interadult anger as a function of gender, age, and mode of expression. *Merrill-Palmer Quarterly*, *37*, 543-560.
- Cummings, E.M., Davies, P.T., & Simpson, K.S. (1994). Marital conflict, gender, and children's appraisals and coping efficacy as mediators of child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141-149.
- Davies, P.T., & Cummings, E.M.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Dadds, M.R., & Powell, M.B. (1991). The relationship of interparental conflict and global marital adjustment to aggression, anxiety, and immaturity in aggressive and nonclinic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9*, 553-567.
- Elder, G.H., & Caspi, A. (1988). Economic stress in lives: Developmental perspectives. *Journal of Social Issues*, *44*, 25-46.
- Emery, R.E. (1982). Interparental conflict and 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ical Bulletin*, *92*, 310-330.
- Emery, R.E., & O'Leary, K.D. (1984). Mari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s in a nonclinic sampl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2*, 411-420.
- Emery, R., Weintraub, S., & Neale, J. (1982).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the school behavior of children of schizophrenic, affective disordered, and normal parent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6*, 215-225.
- Fauber, R.L., & Long, N. (1991). Children in context : The role of the family in child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813-820.
- Fauber, R.L., Forehand, R., Thomas, A.M., & Wierson, M. (1990). A mediational model of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on adolescent adjustment in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 The role of disrupted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1*, 1112-1123.
- Fincham, F.D., Grych, J.H., & Osborne, L. (1994). Does marital conflict cause child maladjust-

- ment? : Directions and challenges for longitudinal research.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128-140.
- Grych, J.H., & Fincham, F.D.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Grych, J.H., & Fincham, F.D. (1993). Children's appraisals of marital conflict : Initial investigations of the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64, 215-230.
- Grych, J.H., Seid, M., & Fincham, F.D.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 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Harold, G.T., Fincham, F.D., Osborne, L.N., & Conger, R.D. (1997). Mom and dad are at it again: Adolescent perceptions of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di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1997, 33, 333-350.
- Hetherington, E.M., Cox, M., & Cox, R. (1985). Long-term effects of divorce and remarriage on the adjustment of children.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4, 518-530.
- Hudson, W.W. (1982). *The clinical measurement package: A field manual*. Chicago : Dorsey Press.
- Jenkins, J.M., & Smith, M.A. (1991) Marital disharmony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spects of a poor marriage that affect children adversel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2, 793-810.
- Jouriles, E.N., Barling, J., & O'Leary, K.D. (1987). Predicting child behavior problems in maritally violent famili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165-173.
- Jöreskog, K.G., & Sörbom, D. (1993). *LISREL 8 :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the SIMPLIS command languag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Long, N., Slater, E., Forehand, R., & Fauber, R. (1988). Continued high or reduced interparental conflict following divorce: Relation to young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467-469.
- Margolin, G. (1981).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and child problems. In J.P. Vincent(Ed.), *Advances in family intervention, assessment and theory. An annual compilation of research*.
- Osborne, L.N., & Fincham, F.D. (1996). Marital conflict, parent-child relations and child relations: Does gender matter. *Merrill Palmer Quarterly*, 42, 48-75.
- Patterson, G.R., & Stouthamer-Loeber, M. (1984). The correlation of family management practices and delinquency. *Child Development*, 55, 1299-1307.
- Rutter, M. (1971). Parent-child separation: Psychological effects on the childre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2, 233-260.
- Schaefer, E.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7-424.
- Strauss, M.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 The Conflict Tactics(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 Tiger, T. (1980). On the biological basis of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51, 943-963.
- Wallerstein, J.S., & Kelly, J. (1980). *Surviving the breakup: How children and parents cope with divorce*. New York : Basic Books.

Zaslow, M.J. (1989). Sex differences in children's response to parental divorce: 2. Samples, variables, ages, and sourc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 118-141.

원고접수일 2000. 7. 3
수정원고접수일 2000. 10. 5
게재결정일 2000. 10. 12 ■

부록 1. 부모의 연령, 결혼기간, 학력과 및 주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 | 1 | 2 | 3 | 4 | 5 | 6 |
|--------|---------|--------|-------|-------|---------|-------|
| 아버지 연령 | -.008 | .024 | -.043 | -.029 | -.010 | -.061 |
| 어머니 연령 | -.032 | .034 | .027 | .023 | -.111* | -.058 |
| 결혼 기간 | -.052 | -.031 | -.078 | -.021 | -.002 | -.019 |
| 아버지 학력 | -.157** | -.101* | -.050 | -.022 | -.142** | .043 |
| 어머니 학력 | -.054 | -.042 | -.075 | -.043 | -.140** | .037 |

주: 1: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 2: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3: 지각된 부정적 양육태도, 4: 아동이 보고한 내면화 문제, 5: 어머니가 보고한 아동의 외현화 문제, 6: 교사가 보고한 아동의 외현화 문제. * $p < .05$. ** $p < .01$.

부록 2. 월 평균 소득에 수준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 | 1 (n=43) | 2 (n=172) | 3 (n=133) | 4 (n=57) | 5 (n=47) | F |
|------------|--------------------------|--------------------------|--------------------------|-------------------------|--------------------------|----------|
| 부모 보고 부부갈등 | 35.0(23.7) ^{ab} | 29.4(22.2) ^{bc} | 27.6(21.2) ^{bc} | 19.7(15.3) ^c | 21.1(14.4) ^{bc} | 4.970** |
| 아동 지각 부부갈등 | 9.8(6.0) ^a | 8.2(5.9) ^{ac} | 7.2(5.8) ^{abc} | 5.2(4.5) ^b | 6.0(6.1) ^{bc} | 5.573*** |
| 지각된 양육태도 | 13.2(10.5) ^{ab} | 14.8(13.3) ^a | 10.7(10.7) ^{ab} | 9.0(10.0) ^b | 12.5(11.9) ^{ab} | 3.677** |
| 아동 보고 내면화 | 14.2(7.9) | 15.6(9.2) | 13.3(9.1) | 13.2(10.2) | 15.2(8.6) | 1.583 |
| 어머니 보고 외현화 | 9.0(5.2) ^a | 7.9(6.0) ^{ab} | 6.8(5.6) ^{ab} | 5.2(4.5) ^b | 7.2(7.2) ^{ab} | 3.453** |
| 교사 보고 외현화 | .09(1.06) | -.07(.91) | -.01(.90) | -.22(.82) | .09(.95) | 1.052 |

주: 같은 알파벳 첨자는 집단간 차이가 없음을 의미함(Scheffe 검증, $p < .05$). 1. 100만원 미만, 2. 100-199만원, 3. 200-299만원, 4. 300-399만원, 5. 400만원 이상. ** $p < .01$. *** $p < .001$.

부록 3. 경로모형 검증에 입력된 공변량 자료

| | 남 아 | | | | | 여 아 | | | | | 전 체 | | | | |
|---|---------|--------|---------|--------|--------|---------|--------|---------|--------|--------|---------|--------|---------|--------|--------|
| | 1 | 2 | 3 | 4 | 5 | 1 | 2 | 3 | 4 | 5 | 1 | 2 | 3 | 4 | 5 |
| 1 | 422.889 | | | | | 457.013 | | | | | 439.909 | | | | |
| 2 | 36.072 | 37.248 | | | | 51.056 | 32.017 | | | | 43.766 | 34.453 | | | |
| 3 | 38.018 | 42.545 | 157.698 | | | 34.249 | 32.369 | 127.539 | | | 35.908 | 37.163 | 141.647 | | |
| 4 | 30.909 | 29.231 | 68.639 | 89.297 | | 16.512 | 18.431 | 52.208 | 77.727 | | 23.593 | 23.445 | 59.798 | 83.575 | |
| 5 | 37.859 | 6.201 | 12.848 | 7.611 | 38.484 | 21.536 | 5.641 | 11.394 | 13.006 | 29.957 | 29.074 | 5.958 | 12.145 | 10.048 | 34.212 |

주: 1. 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 2.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3. 지각된 부정적 양육태도, 4. 내면화 문제, 5. 어머니가 보고한 외현화 문제

부록 4. 내면화 문제에 대한 경로 모형 검증 절차

| 단계 | 대상 | 모형 | 검증 내용 | 검증 결과 | 판정 |
|----|-----|-------------|-------------------|--|---------------------|
| 1 | 남 | I_0 | 기본 모형 부합도 검증 | $\chi^2(df=3, n=220)=17.249$ $p=.000628$ | 부합하지 않음 |
| 2 | 남 | I_1 | 수정 모형 부합도 검증 | $\chi^2(df=2, n=220)=0.189$ $p=.910$ | 부합도 높음 |
| 3 | 남 | $I_0 : I_1$ | 두 모형간 부합도 차이 검증 | $\Delta \chi^2(\Delta df=1)=17.06$ $p<.001$ | I_1 채택 |
| 4 | 여 | I_0 | 기본 모형 부합도 검증 | $\chi^2(df=3, n=241)=7.422$ $p=.0596$ | 자료에 부합하지만 부합도 낮음 |
| 5 | 여 | I_1 | 수정 모형 부합도 검증 | $\chi^2(df=2, n=241)=2.571$ $p=.277$ | 부합도 높음 |
| 6 | 여 | $I_0 : I_1$ | 두 모형간 부합도 차이 검증 | $\Delta \chi^2(\Delta df=1)=4.851$ $p<.05$ | I_1 채택 |
| 7 | 남·여 | I_1 | 모형의 남녀 집단간 동일성 검증 | $\chi^2(df=11)=11.781$ $p=.380$ | 남녀 집단에서 동일하게 부합 |
| 8 | 전체 | I_1 | 전체 집단 대상으로 부합도 검증 | $\chi^2(df=2, n=461)=1.626$ $p=.443$ | 부합도 높음 I_1 채택 |

주: I_0 : 기본 모형. I_1 : 수정 모형(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 내면화 문제 경로 추가).

부록 5. 외현화 문제에 대한 경로 모형 검증 절차

| 단계 | 대상 | 모형 | 검증 내용 | 검증 결과 | 판정 |
|----|-----|-------------|-------------------|---|--------------------|
| 1 | 남 | E_0 | 기본 모형 부합도 검증 | $\chi^2(df=3, n=220)=17.920$ $p=.000457$ | 부합하지 않음 |
| 2 | 남 | E_1 | 수정 모형 부합도 검증 | $\chi^2(df=2, n=220)=0.137$ $p=.934$ | 부합도 높음 |
| 3 | 남 | $E_0 : E_1$ | 두 모형간 부합도 차이 검증 | $\Delta \chi^2(\Delta df=1)=17.783$ $p<.001$ | E_1 채택 |
| 4 | 여 | E_0 | 기본 모형 부합도 검증 | $\chi^2(df=3, n=241)=8.880$ $p=.0309$ | 부합하지 않음 |
| 5 | 여 | E_1 | 수정 모형 부합도 검증 | $\chi^2(df=2, n=241)=2.474$ $p=.290$ | 부합도 높음 |
| 6 | 여 | $E_0 : E_1$ | 두 모형간 부합도 차이 검증 | $\Delta \chi^2(\Delta df=1)=6.406$ $p<.025$ | E_1 채택 |
| 7 | 남·여 | E_1 | 모형의 남녀 집단간 동일성 검증 | $\chi^2(df=11)=14.747$ $p=.194$ | 남녀 집단에서 동일하게 부합 |
| 8 | 전체 | E_1 | 전체 집단 대상으로 부합도 검증 | $\chi^2(df=2, n=461)=1.832$ $p=.400$ | 부합도 높음 E_1 채택 |

주: E_0 : 기본 모형. E_1 : 수정 모형(부모가 보고한 부부갈등 → 외현화 문제 경로 추가).

Effects of Perceived Marital Conflicts on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Min-Sik Lee

Kyung Ja Oh

Seoul Institute for Cognitive Therapy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onal effects of children's perceptions of marital conflict and parental attitude on the process of marital conflict influencing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The sample subjects were comprised of 461 4th, 5th and 6th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220 boys and 241 girls), their parents and teachers participated in the study. Path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and explore the relations among parental reports of marital conflict, childrens' perceptions of marital conflict, and negative parental attitude, and internalizing/ externalizing problems in the chil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or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there was a significant path from parental reports of marital conflict to perceived marital conflict. Both the direct path from perceived marital conflict to internalizing problems and the indirect path from perceived marital conflict through perceived parental attitude to internalizing problems were significant. The results of fitting the model for externalizing problems showed that there was significant indirect path from parental reports of marital conflict to children's externalizing problems through perceived marital conflict and perceived parental attitude. In addition,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rect path from parental reports of marital conflict to externalizing problems. The results of path analyses showed that the gender of child didn't moderate the influences of marital conflict on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Finall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